

# 달성공원 동물원 대구대공원으로의 이전 반대 결의안

(구자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0
----------	------

발의연월일 : 2017. 5. 17.

발의의원 : 구자학 의원 등 8인

## 1. 주문

가.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부지 선정은 대구광역시의 일방적인 공영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대구시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교도소 이전 부지를 제공한 달성군에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동물원 이전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 2. 제안이유

가. 지난 5월 16일 대구시장은 ‘대구대공원 공영개발계획’ 중 대구대공원 내에 달성공원 동물원을 확장 이전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음.

나.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대구교도소의 지역 내 이전에 대의를 위한 마음으로 적극 협조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나큰 상실감을 느꼈음.

다. 특히, 이번 동물원 이전은 대구대공원 개발사업과 연계된 사항이며, 이전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못 박은 것은 그동안 동

물원 이전과 관련하여 입지선정 및 타당성 용역 등을 수행한 대구시의 행정행위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임.

라. 이러한 대구시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결정은 대구교도소의 하빈면 이전과 함께 달성공원 동물원 또한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24만 달성군민의 기대를 저버린 처사라고 할 것임.

마. 이에,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부지 선정은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달성군으로의 이전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함으로 달성공원 동물원 대구대공원으로의 이전 반대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음.

### 3. 결의문 : 붙임

### 4. 참고사항

○ 결의문 배부 :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의회회장

# 달성공원 동물원 대구대공원으로의 이전 반대 결의문

달성군의회는 대구광역시의 달성공원 동물원 대구대공원으로의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

1970년도에 문을 연 달성공원 동물원은 과거 영남권 유일의 도심속 동물원으로 대구시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관람객들에게 동물체험활동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달성공원 동물원은 낙후된 시설과 동물들의 고품화 등으로 과거의 명맥만 근근히 유지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달성군민은 대구시의 오랜 숙원 사업인 대구교도소의 하빈면으로의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낙후된 하빈면으로의 동물원 이전을 2011년 8월 31일 건의서 제출을 비롯하여 그동안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달성군민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6일 대구시의 달성공원 동물원 대구대공원으로의 이전 결정 발표 소식은 우리 달성군민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주었으며, 이러한 대구시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결정은 24만 달성군민을 무시한 처사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더불어 대구시는 지난 2013년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과 관련한 최종보고회 및 입지선정위원회 상정 등 모든 일정을 보류한 상황에서 갑작스레 지난 16일 대구대공원 개발 방안을 대구시장이 직접 발표하고, 동물원 이전은 대구대공원 개발사업과 연계된 사항이며, 이전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밝힌 내막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 공개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달성군의회는 대구시의‘달성공원 동물원 대구대공원으로의 이전’을 결사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부지 선정은 대구시의 일방적인 공영개발계획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대구시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교도소 이전 부지를 제공한 달성군에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동물원 이전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2017년 5월 18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 발 의 자 서 명 부

의 원 명	서 명	날 인
구 자 학	구 자 학	
하 용 하	하 용 하	
하 중 환	하 중 환	
채 명 지	채 명 지	
김 상 영	김 상 영	
김 성 택	김 성 택	
엄 윤 탁	엄 윤 탁	
신 영 희	신 영 희	

